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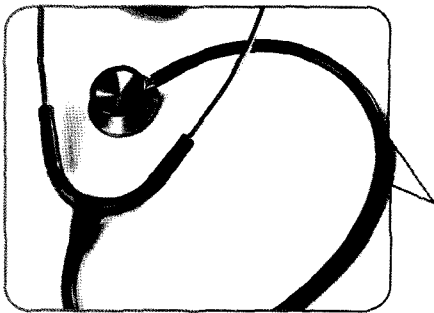
발명 365

어떻게 이런 일이...

3

6

5



청진기

의사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구이다. 청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라에네크.

그는 1781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태어났다. 후에 전문 병리학자가 된 그는 35세 때 프랑스 루브르 궁의 안 뜰을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긴 막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를 서로의 귀에 대고 재잘거리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라에네크의 머리 속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옳지, 저런 식으로 심장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진찰실에서 종이를 말아 여러 가지로 실험을 시작했다. 종이를 말아 묶어 통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환자의 심장에 대보았는데 이것이 청진기를 사용한 최초의 청음진찰이었다.



체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중에 구동체인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체인에 대한 세계 최초의 고안이다. 체인을 사용한 구동시스템에서는 1588년 경 라멜 리가 지은 「여러 가지의 기계」라는 책에 육지로 끌어올리는 기계에 이용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 있다.

1864년 제임스 슬레이터는 자전거 등을 구동할 수 있을 만한 강하고도 정밀한 체인의 특허를 취득했다. 살포드에 있었던 그의 공장에서는 그때까지 직물 기계용의 체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스위스의 한스 레놀츠가 이것을 매수하여 1880년에는 부슈롤리식 체인의 특허를 취득했다. 구동체인은 널리 쓰이지 못하다가 산업혁명의 결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1868년 프랑스에서 뒤틀바퀴를 체인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자전거가 앙드레 기르메에 의해 탄생되었다.

왕연중 _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